

# 정약용의 한강 수로 여행과 시적 형상화

신익철(한국학중앙연구원)

<목차>

1. 머리말
2. 한양 뱃길과 경강(京江)의 풍경
3. 남한강 뱃길과 선유(船遊) 풍경
4. 북한강 선유와 부가범택(浮家汎宅)의 소망 실현
5. 맺음말

## 1. 머리말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두물머리(양수리) 부근 마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약용은 환로와 유배지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곳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냈다. 환로에 있을 때 다산은 수로를 통해 한양을 수시로 왕래하였고, 충주에 있는 선영을 참배할 때에는 남한강의 수로를 즐겨 이용하였다. 그리고 해배 후인 1820년과 1823년에는 춘천까지 수로 여행을 하면서 북한강 일대의 승경을 두루 유람하기도 하였다. 두 차례의 춘천 여행은 춘천에서 손자며느리를 맞아오기 위한 것으로, 다산은 『산행일기(汕行日記)』에서 그 자세한 여정을 기록하였다. 이로 미루어보면 18세기 이후 상공업의 발달과 유통경제의 확대에 따라 한강의 수로가 발달하였거니와, 다산은 그 혜택을 누

구보다 잘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산이 우리나라 하천에 관한 지리서인 『대동수경(大東水經)』을 저술한 데에는 이러한 수로 여행의 체험이 크게 작용했다. 산지가 아닌 하천을 중심으로 국토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고자 한 이 저술은 18세기 이후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모에 따른 물화의 유통과 지역 교류의 활성화를 중시한 실학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sup>1)</sup> 북한강 부근에서 생활하면서 수로 여행의 경험이 풍부한 다산에게 『대동수경』은 다른 무엇보다도 실생활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저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양을 왕래하거나 여타 지역을 여행할 때 즐겨 수로를 이용한 다산은 뱃놀이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었다. 이는 「초상연파조수지가기(苕上煙波釣叟之家記)」라는 글에 잘 드러나 있는데, 그 첫 대목은 다음과 같다.

원굉도(袁宏道)는 많은 돈을 주고 배 하나를 사서 배 안에다 북과 피리 그리고 관악기와 현악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오락 기구를 갖추어 놓고 마음 내키는 대로 놀다가, 비록 이 때문에 망한다고 하여도 후회하지 않겠노라고 했다. 이것은 미친 사람이나 방탕한 자가 할 일이지, 나의 뜻은 그렇지 않다.

나는 적은 돈으로 배 하나를 사서 배 안에 어망(漁網) 네댓 개와 낚시대 한두 개를 갖추어 놓고, 또 솔과 잔과 소반 같은 여러 가지 섭생에 필요한 기구를 준비하며 방 한 칸에는 온돌을 놓고 싶다. 그리고 두 아이에게 집을 지키게 하고, 늙은 아내와 어린아이 및 어린 종 한 명을 이끌고 부가범택(浮家汎宅)으로 종산(鐘山)과 초수(苕水) 사이를 왕래하면서 오늘은 오계(奧溪)의 연못에서 고기를 잡고, 내일은 석호(石湖)에서 낚시질하며, 또 그 다음날은 문암(門巖)의 여울에서 고기를 잡는다. 바람을 맞으며 물 위에서 잠을 자고 마치 물결에 떠다니는 오리들처럼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때때로 짤막짤막한 시가(詩歌)를

---

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동수경> 참조.

지어 스스로 기구한 정회를 읊고자 한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sup>2)</sup>

원굉도처럼 유흥을 위한 뱃놀이는 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도, 다산은 살림살이 일체를 구비한 배에서 이곳저곳 낚시하면서 소요하고 시구를 읊조리며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삶이 자신의 소원임을 말하였다. 다산은 성령(性靈)을 중시하는 원굉도의 문학 세계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이에 함몰되지는 않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원굉도의 국영시(菊影詩)를 본따 죽란시사의 동인들과 국화 그림자놀이를 즐겼지만, 문학적 흥취와 서정의 대상보다는 과학적 관찰의 시선으로 국영을 대했다.<sup>3)</sup>

다산은 ‘초수 가 안개 물결 속에서 낚시하는 늙은이의 집(菴上煙波釣叟之家)’이라 새긴 현판도 만들어놓고, 1800년 초여름에 막 배를 만들려고 할 때에 임금께서 소환하여 고향 집 정자에 내걸어놓고 서울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글을 끝맺는다. 이 짙막한 기문은 정조의 두터운 신임 하에 개혁 정치에 매진하던 시기에도 다산 내면에는 귀향하여 한적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염원이 강렬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귀거래 하여 꿈꾸는 삶의 모습이 배를 타고 이리저리 물결 가는 대로 노니는 부가범택의 생활임이 이채롭다. 아마도 북한강변의 수려한 풍광은 그에게 고향을 대표하는 심상(心象)이고, 이를 즐기는 방편으로 다산은 부가범택을 꿈꾸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

2) 『다산시문집』 권14. “袁宏道欲以千金買一舟，舟中置鼓吹細樂諸凡玩娛之物，以窮心志之所欲，雖由此敗落而不悔，此狂夫蕩子之所爲，非余之志也。余欲以一金買一舟，舟中置漁網四五張 · 釣竹一二竿 · 備鼎鑪栝盤諸凡養生之器，爲屋一間而炕之。令二兒守家，挈老妻 · 穉子及僮一人，浮家汎宅，往來於鍾山 · 菴水之間。今日漁于粵溪之淵，明日釣于石湖之曲，又明日漁于門巖之瀨，風餐水宿，汎汎若波中之鳧，時爲短歌小詩，以自抒其崎嶇歷落之情，是吾願也。” 번역은 고전번역원의 국역본을 참조하면서 문맥에 맞게 다듬었다. 이하 같음.

3) 이에 대해서는 신익철, 「다산과 다산학단의 국영시 창작과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 16집, 2008, 참조.

평소 부가범택의 생활을 염원한 다산은 한강 일대를 배를 타고 여행하면서 지은 시를 많이 남겼다. 다산이 한강의 경물을 읊은 시는, ① 한양을 배로 출입하면서 경강(京江)의 풍광을 노래한 시, ② 충주의 선영을 참배하면서 남한강 뱃길의 풍광을 노래한 시, ③ 해배 이후에 부가범택(浮家汎宅)으로 북한강을 유람하며 지은 시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시를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 한강 주변의 다채로운 풍광과 삶의 현장을 대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산 문학에서 한강이 차지하는 의미 또한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한양 뱃길과 경강(京江)의 풍경

다산은 1776년, 15세의 나이 때 풍산 홍씨 홍화보(洪和輔)의 따님과 결혼하였다. 다음 시는 혼례를 치르러 배를 타고 한양으로 가면서 지은 시다.

아침 햇살 받은 산 멀리 밝게 빛나고	旭日山晴遠
봄바람 불어와 강물 일렁이누나.	春風水動搖
구비 진 기슭 만나 키를 돌리더니	岸廻初轉柁
여울 빨라 노 젓는 소리 들리지 않네.	湍駛不鳴橈
열푸른 수초 물위에 떠있고	淺碧浮莎葉
노랗게 물드는 버들가지 하늘거린다.	微黃着柳條
한양이 차츰차츰 가까워 보이더니	漸看京闕近
울창한 삼각산이 높이 솟았구나. <sup>4)</sup>	三角鬱峯嶢

4) 『다산시문집』 권1, 「春日陪季父乘舟赴漢陽」

봄날 아침 환한 햇살을 받으며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다. 구비 도는 기슭에서 키를 돌려 방향을 바꾸고, 세찬 여울을 만나서는 노질을 멈추고 물살의 흐름에 내맡기는 돛단배의 모습이 떠오른다. 물 위에 든 수초와 강변에 늘어진 버드나무를 바라보다 보니, 어느새 한양 땅 우뚝 솟은 삼각산의 자태가 눈에 들어온다. 뱃길로 한양으로 가는 정취와 빠른 속도감이 경쾌한 필치로 그려져 있으니, 웬지 혼례를 앞둔 신랑의 조바심이 읽혀지기도 한다.

다음 시 또한 고향 초천(淸川)에서 뱃길로 한양에 오는 정경을 읊은 시의 한 대목이다.

배 안의 살림살이 모두 배에 알맞은데	船中器具皆稱船
질솥은 뚜껑 없고 독배기는 이 빠졌네.	瓦鑊闕蓋磁碗缺
아홉 살짜리 화동이 밥을 능히 지어	火童九歲能炊飯
밥내가 사람 동해 군침이 혀끝에 도네.	飯香動人涎出舌
즐겁게 배불리 먹고 노질을 재촉하여	歡然一飽催蕩槳
물살 센 여울로 삐걱삐걱 옮겨가니,	咿嘎漸投湍水決
낭떠러지와 숲이 다함께 잽싸게 달아나고	急急危梢并林奔
숨은 바위 눈길 스쳐 번쩍번쩍 어지럽구나.	閃閃隱石過眼纒
잔잔한 곳 이르자 한가로이 뚱뚱 떠있기에	漸到安流閒汎汎
손으로 잔물결 만지며 깊은 물밑 굽어보니,	手弄漣漪俯深穴
마름 끝엔 머리 모아 피라미들 헤엄치고	蘋末聚首游細魚
바위 위엔 등딱지 말리는 자라 옆드려있네. <sup>5)</sup>	石稜曬甲伏老鼈

5) 동상, 「自淸川乘舟抵漢陽」

한양으로 가는 나룻배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배 안에는 취사도구를 비롯한 살림살이가 갖추어져 있고, 아홉 살 먹은 어린아이가 밥을 짓는다. 배 안에서 밥을 배불리 먹고 하는 노질이라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듯 하다. 물살이 센 여울에서 배가 속도를 내자 강변의 절벽과 숲 풍경이 도망치듯 지나가고, 눈에 띄지 않았던 바위들이 눈길을 획획 스쳐 어지럽게 느껴진다. 그러다가 물결 잔잔한 곳에 이르러서는 뱃전에서 손으로 강물을 움켜쥐며 물고기와 자라 등을 구경하는 한적함을 누리기도 한다.

다음은 다산이 젊은 시절 잠시 서울에서 머물 때에 용산 주변 한강의 모습을 노래한 시다. 총 5수의 연작시인데, 그 중 두 수를 들어본다.

목동 젓대 한 가락이 서쪽에서 들리는데	西來牧笛一聲長
밤섬이라 물안개가 버들 물결에 이어졌네.	栗島煙波接柳浪
보드라운 털 짐승 무리지어 풀 뜯는데	隊隊柔毛行齧草
어인 일로 조선 땅에 양이 없다 일렀던고.	朝鮮何事道無羊
고깃배 저물녘에 버들 가에 매였다가	漁舟晚繫綠楊頭
한강 어귀 밀물 들자 행주로 건너가네.	泔口潮來度幸州
이 노인 그물 치는 그곳을 구경하려면	要見此翁施網處
황혼 무렵 모름지기 읍청루에 올라야지. <sup>6)</sup>	黃昏須上挹淸樓

---

6) 동상, 「夏日龍山雜詩」

다산은 20세 무렵 서울에서 과거를 준비하며 지냈으며, 용산에는 벗 이기경(李基慶)의 정자가 있었다. 아마도 이 시는 이기경의 정자에서 바라본 한강 풍경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용산 서쪽 현재 서강대교 부근에 있는 밤섬에서 당시 양을 길렀으며, 행주 부근에서는 고기잡이가 성행했음을 알려준다. 읍청루는 현재 용산구 청암동 160번지 남쪽 강변에 있던 정자로 본래 훈련도감의 별영 건물에 딸린 누였다. 이 누정에 오르면 앞의 용산 일대와 마포는 물론 멀리 한강 하류의 행주 방면까지도 조망하는 명소였다고 한다.<sup>7)</sup>

겸재 정선(鄭敼) 또한 <행호관어(杏湖觀漁)>라는 제명의 그림을 남기고 있다. 영조 16년(1740년) 그는 65세의 나이로 양천 현령에 제수되었는데, 이 때 그가 양천 관아 뒤편 궁산의 소악루(小岳樓)에 자주 올라 한강 주변의 풍광을 그림에 담았다. 당시 서해의 조수와 한강 민물이 만나는 행호 일대는 많은 어류들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 일대를 ‘행호’라 부른 것은 한강물이 행주산성의 덕양산 앞에 이르러 강폭이 넓어져 강이 마치 호수와 같다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정선의 <행호관어>에 쓴 사천 이병연(李秉淵)의 제시는 다음과 같다.

늦봄에는 복어국이요	春晚河腹羹
초여름이면 웅어회라.	夏初葷魚膾
복사꽃 가득 떠내려 올 무렵	桃花作漲來
행호 주변엔 그물 치기 바쁘다	網逸杏湖外

---

7) 이상배, 『서울의 누정』,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315쪽.



【정선, <행호관어>】

정선과 이병연은 서울 인왕산 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죽마고우로 나란히 김창흡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평생 예술적 지향을 같이 하였다. “내 시와 자네 그림 서로 바꿔 볼 적에, 둘 사이 경중을 어찌 값으로 따지겠나. 시는 간장에서 나오고 그림은 손으로 휘두르는 것, 누가 쉽고 누가 어려운지 알 수 없다네.(我詩君畫換相看, 輕重何言論價問. 詩出肝腸畫揮手, 不知誰易更誰難.)”라는 이병연의 시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병연의 시는 정선이 그림에서 표현하지 못한 귀중한 정보로 행호의 물고기로 복어와 웅어가 유명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1787년 여름에 다산은 이기경의 용산 정자에서 여러 벗들과 함께 과문(科文)을 익히던 중 월파정(月波亭)에서 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월파정은 이름 그대로 한강에서 달구경하기에 이름난 곳으로 조선 중기 이래 뛰어난 문사들의 시회처로 각광을 받던 곳이다. 권필(權韜), 조찬한(趙纘韓)이 어울려 시를 지었고, 이민구(李敏求), 김세렴(金世濂) 등 후배 시인들도 이곳에 자주 올랐다. 신정하(申靖夏), 홍세태(洪世泰) 등도 이



곳에 올라 어려운 운자를 내어 놓고 한바탕 시회를 벌인 바 있다.<sup>8)</sup> 다산은 「월파정야유기(月波亭夜游記)」에서 이때의 정경을 소상히 기록하면서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배에 올라 달을 맞으니, 오로지 만 길이나 되는 황금빛 줄기가 수면에 내려 썩더니, 잠깐 돌아보는 동안에 천태백상(千態百狀)으로 순간순간 광경이 바뀌었다. 수면이 움직일 때는 부서지는 모습이 구슬이 땅에 흩어지듯 하고, 조용할 때는 평활(平滑)하기가 유리가 빛을 내는 것과 같았다.”라고 묘사하였다. 아울러 마포 서강가에 있는 추수정(秋水亭)의 기문을 서주기도 하였다.

### 3. 남한강 뱃길과 선유(船遊) 풍경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은 일찍이 1688년 한 달여 간 단양 일대를 유람하고 그 여정을 『단구일기(丹丘日記)』에서 소상히 기록한바 있다. 형 김창협(金昌協)이 청풍(淸風) 현감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인연으로 홍세태(洪世泰)와 함께 한 이 여행은 덕소 → 여주 → 충주 → 단양 → 영월에 이르는 여정으로 주로 남한강 뱃길을 이용한 것이었다. “강 위의 배를 살지언정, 강가의 누정은 사지 않으리. 누정을 사봐야 한 곳에 앉을 뿐, 배를 사서 원유를 마음껏 하리라.(寧買江上船, 不買江畔樓. 買樓坐一處, 買船放遠遊.)”<sup>9)</sup>라 노래한 바 있는 김창협에게 수로 여행은 원유(遠遊)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었던 것이다. 김창협은 이 여행에서 300여 수의 시를 남기었거니와, 『단구일기』에는 배를 타고 하는 수로 여행의 묘미와 풍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sup>10)</sup>

---

8) 앞의 책, 333쪽.

9) 『三淵集』 권3, 「楮島往返」

10) 윤경희, 「김창흡의 단구일기 연구」, 『민족문화연구』 41호.

김창흡의 『단구일기』는 조선 후기에 남한강 수로를 통한 여행이 성행했음을 짐작케 하거니와, 마재에서 생활한 정약용은 충주에 있는 선영을 찾을 때면 으레 남한강 뱃길을 이용하였다. “문전에 비단 띠 마냥 두른 강물, 아득히 멀리 예성까지 이어졌네. 해마다 꽃다운 풀 우거질 때면, 애통함 머금고 이 길을 간다오.(羅帶門前水, 遙遙接蕊城. 年年芳草岸, 悽愴有斯行)”<sup>11)</sup>라는 시에서 예성(蕊城)은 충주의 옛 이름인바, 정약용은 해마다 봄철이면 뱃길로 충주의 선영을 찾았다. 특히 유배에서 돌아온 이듬해인 1819년에 백씨 정약현(丁若鉉)과 함께 충주 선영을 찾을 때는 무려 75수의 연작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 중 몇 수를 들어본다.

산수와 습수가 합쳐 흐르는 곳	汕濕交流處
그 마을 이름 두물머리인데,	村名二水頭
마을 앞 한 전방 늪은이가	當門一店叟
가만히 앉아 가는 배를 전송하는구나.	堅坐送行舟
저 멀리 보는 수양버들 속으로	遠遠垂楊裏
술파는 배 날듯이 달리는구나.	飛奔賣酒船
처음에는 인정으로 길손 권하면서	始來情勸客
전혀 돈을 따지지 않을 것 같다네.	渾似不論錢
뱃길은 사탕수수 씹기와 같아서	船行似噉蔗
깊이 들수록 맛이 더욱 좋구나.	深入味彌佳
섬강 포구 어귀를 지나지 않고서	不經蟾浦口

11) 『다산시문집』 권6, <松坡酬酢> 「三月二十七日 乘小牒 赴忠州 舟中雜吟」

어떻게 이 붉은 절벽을 얻으랴.<sup>12)</sup>

何得此丹崖

산수(山水)는 북한강, 습수((濕水)는 남한강을 말하니, ‘산곡을 흐르는 물’과 ‘원습(原隰)을 흐르는 물’이란 의미이다. 이 시는 제목에서 “4월 15일 백씨를 모시고 어부의 집에서 작은 배를 빌려 충주로 향하였다(四月十五日 陪伯氏 乘漁家小牒 向忠州)’라고 하였다. 첫 번째 시를 통해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수하는 두물머리에 사는 어부의 집에서 배를 빌려왔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술파는 배가 손님을 끄는 정경을 말한 것으로 조운선을 비롯해 각종 물화가 활발히 유통되던 남한강 뱃길의 또다른 풍경이라 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 시는 배를 타고 하는 여행이 할수록 더욱 묘미가 있다는 것으로 강변의 아름다운 정경은 수로 여행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다산은 당나라 시인 전기(錢起, 710~782) 「강행절구(江行絕句)」를 본떠 100수의 연작 시를 짓고자 했는데 75수에 그치고 말았다. 다산은 이것이 못내 아쉬웠던지, 이듬해인 1820년 큰형 정약현의 아들 정학순(鄭學淳)의 납채(納采)를 위해 춘천에 가는 뱃길에 동행해 나머지 25수를 이어 짓는다.<sup>13)</sup>

다산의 남한강 수로 여행이 충주의 선영 참배에만 이루어진 것은 물론 아니다. 다음은 충주 가흥강에서 뱃놀이 하며 지은 시를 보도록 하자.

험준한 산길 오래도록 싫증나서

久厭山谿險

12) 『다산시문집』 권7, <歸田詩草> 「四月十五日 陪伯氏 乘漁家小牒 向忠州口效錢起江行絕句」

13) 이듬해인 1821년 북한강을 여행하면서 지은 시를 모은 「穿牛紀行」의 서문에서 “지난해 충주를 갈 적에는 오언시를 지어 기행을 하되 전기의 강행시 일백 절구 가운데 칠십오 수만을 본받아 짓고 말았으므로, 이번에는 칠언시 이십오 수를 지어 그 부족분을 채우고, 또 잡체시 몇 수를 지어 함께 한 권을 만들었다.(前年忠州之行, 作五言以紀之, 效錢起「江行」百絕句, 七十五首而止. 今作七言得二十五首以足之, 又得雜體若干首, 共爲一卷.口동상)”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편리한 뱃길로 생각 바꾸었네.	翻思水路便
단양 동굴의 약속 어긴 일 서글퍼하며	悵違丹穴約
홀로 예주의 배에 올랐더니,	獨上藥州船
강가 양 언덕의 풍경 수려하고	兩岸風煙麗
중류에 이르자 사방이 흰히 트였구나.	中流顧眇專
… <중략> …	
어여쁜 봉우리들 나는 듯 나타나더니	娟妙飛峯出
비스듬히 누운 버드나무 휙휙 지나치네.	逶迤臥柳遷
소용돌이치는 물 급한 여울로 흐르고	盤渦趨急瀨
울퉁불퉁 바위에 부딪쳐 울기도 한다.	惡石吼驚泉
썩썩 부는 바람 술을 깨게 하고	拂拂風醒酒
찰랑찰랑 넘치는 물 뱃전을 치네.	搖搖水擊舷
저 멀리 넓은 들판 나타나고	悠然出平地
활짝 개인 푸른 하늘 보이더니,	開朗見青天
가도 가도 드넓게 펼쳐진 세계	世界重重豁
굽이굽이 안개가 자욱이 깔리었네.	人煙曲曲連
험하고 평탄한 길 늘 서로 바뀌고	險夷常遞換
근심과 즐거움도 언제나 서로 뒤바꾸는 법.	憂樂每相牽
옹색한 마음으로 시속 슬퍼하다가	狹陋傷時俗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놀기도 하지요.	優遊謝罪愆
내 이제 모쪼록 강과 바다에 뜻을 두어	庶將江海志
번잡한 조정과는 잠시 인연 끊으려 하네. <sup>14)</sup>	暫絕市朝緣
… <하략> …	

14) 『다산시문집』 권3, 「嘉興江放船口丙辰四月十六日」

이 시는 제목에서 丙辰(1796년) 4월 16일이라고 지은 시기를 밝히고 있다. 1795년 7월에 다산은 주문모(周文謨) 사건에 연루되어 충청도 금정(金井) 찰방으로 좌천되었다가, 12월에 규장각의 부사직(副司直)으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이 시는 다산이 서학도로 몰려 곤경을 겪던 시기에 울적한 심사를 풀려고 충주 가흥강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가흥강은 충북 중원군 가금면 가흥리에 있었던 가흥창(嘉興倉) 일대의 남한강을 일컫는다. 가흥창은 남한강 유역의 대표적인 조창(漕倉)으로 경상도 여러 고을과 충청도의 충주, 음성, 괴산, 청안, 보은, 단양, 영춘, 제천, 진천, 황간, 영동, 청풍, 연풍, 청산 등지의 전세를 모아 한성의 경창(京倉)으로 운반하는 남한강 수로 교통의 요지였다.

산봉우리와 강변의 버드나무가 나는 듯 스쳐 지나고, 급한 여울을 통과할 때에는 바위에 부딪치는 물소리가 요란하다. 울적한 심사를 풀려고 마신 술은 뱃전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말끔히 깨고, 드넓게 펼쳐진 풍경 또한 마음을 후련하게 트여준다. 남한강의 선유는 세속의 시비에 얽매어 웅졸해진 마음을 풀어주어 험하고 평탄함, 근심과 즐거움을 일체로 보는 평등안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다음은 단원 김홍도가 연풍 현감으로 있을 때에 행한 단양 유람을 이 시가 지어진 1796년 ‘병진화첩’이란 이름으로 묶은 화첩 중의 한 폭이다. 도담상봉 앞을 지나가는 배가 다산의 선유 풍경을 떠올리게 하기에 소개해 본다.



【김홍도, <도담삼봉>】

#### 4. 북한강 선유와 부가범택(浮家汎宅)의 소망 실현

다산은 정조의 신임을 받고 관직에 있을 때부터 고향 마재에서 부가범택의 소망을 지니고 있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다산은 평소 염원하였던 부가범택의 꿈을 마침내 실현하게 된다. 그 계기는 조카와 손자의 혼사에 참여하러 춘천에 가면서 이루어졌다. 즉 1820년(순조 20) 만형님 정약현(丁若鉉)의 둘째 아들 정학순(丁學淳)이 춘천으로 장가들러 갈 때 동행하고, 1823년에

말아들 정학연(丁學淵)의 아들 정대림(丁大林)의 혼사에 참여한 것이다. 명목은 조카와 손자의 혼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춘천 여행을 통해 부가범택에 대한 강렬한 염원 속에서 북한강 선유가 이루어졌다. 1823년의 여행에서 지은 『산행일기(山行日記)』에서 다산은 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경(嘉慶) 경진년(1820) 봄 3월 24일에 선백씨(先伯氏)가 학순(學淳)을 데리고 춘주(春州)에 가서 며느리를 맞아올 때에 작은 배를 꾸며 협중(峽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도 따라가서 소양정(昭陽亭)에 올라 청평산(淸平山) 폭포를 보고 절구시 25수, 두보의 시에 화답하여 지은 시 12수, 잡체시 10수를 지었다. 그 후 4년이 지난 계미년(1823) 여름 4월 15일에 학연(學淵)이 대림(大林)을 데리고 춘주에 가서 며느리를 맞아올 때에 작은 배를 꾸며 협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 내가 또 따라갔으니, 마음은 한계(漢溪)와 곡운(谷雲)에 있었다.

특히 큼직한 고기잡이배를 구하여 집처럼 꾸미고 그 문미(門楣)에다가 ‘산수록재(山水綠齋)’라는 편액을 걸었으니 이것은 내가 썼다. 그리고 좌우 기둥에도 주련을 내걸었다. 한쪽에는 ‘장지화가 초수와 삽계에서 노닐 정취[張志和苔蘚之趣]’라 쓰고, 한쪽에는 ‘예원진이 호수와 묘수에서 노닐 정취[倪元鎮湖柳之情]’라고 썼으니 이는 승지 신작(申綽)의 예시이다. 또 학연의 배에 쓰기를 ‘황효수와 녹효수 사이에서 노닌다[游於黃驍綠驍之間]’ 이라 하고, 그 기둥에는 ‘부가범택(浮家汎宅) · 수숙풍찬(水宿風餐)’ 이라 썼다. 천막과 침구, 붓과 벼루, 서적에서부터 약탕관과 다관, 밥술 국술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내심 화공한 사람을 대동하여 단연(丹鉛)과 담채(澹采)를 지니고 다르게 하여 물이 다하고 구름이 피어나는 곳이라든가, 벼들 그늘에 꽃이 활짝 핀 마을에 이를 때마다 배를 멈추고 좋은 경치를 가려 제목을 붙이고 그리게 하고 싶었다. 이를테면 ‘사라담에서 수종사를 바라보다.[沙羅潭望水鐘寺]’라든가 ‘고랑도에서 용문산을 관망하다.[阜狼渡望龍門山]’ 등으로 모두 그려둘 만한 절경이었다.<sup>15)</sup>

장지화(張志和)는 당나라의 은사로 벼슬을 그만두고 강호에 살면서 연파조도(煙波釣徒)라 자호한 인물이다. 그가 은거한 곳은 절강성 호주시(湖州市)였는데, 안진경(顏真卿)이 호주 자사로 있을 때 그가 안진경을 찾아가 본 일이 있었다. 안진경이 그의 배가 망가졌음을 보고 새것으로 바꾸기를 청하자, 장지화가 “나는 집을 물에 띄우고서 초계(苕溪)와 삽계(霅溪) 사이를 왕래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하였다는 말이 유명하다. 예찬(倪瓚)은 원나라 무석(無錫) 사람으로 원진(元鎮)은 그의 자이며, 시에 능하고 산수화를 잘 그렸다. 그는 만년에 청한각(淸閑閣)과 운림당(雲林堂)을 짓고 조각배로 호수(湖水)와 묘수(洧水)를 왕래하며 한가롭게 지냈다고 한다. ‘장지화가 초수와 삽계에서 노닐 정취’와 ‘예원진이 호수와 묘수에서 노닐 정취’라는 대련은 곧 두 사람처럼 강물에 배를 띄우고 한가롭게 노닐고자 하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정학연의 배에는 ‘유어황효녹효지간(游於黃驍綠驍之間)’라고 썼는데, 황효는 여주(驪州) 녹효는 홍천(洪川)의 별칭이다. 따라서 황효수와 녹효수는 곧 여강과 홍천강을 지칭하며, 이번 여행에서 이 두 강을 주로 노닐게 되겠기에 이처럼 쓴 것으로 여겨진다.

또 ‘물 위에 뜬 집, 떠다니는 가택[浮家汎宅]’ · 물 위에서 자고 바람 맞으며 먹는다 [水宿風餐]’라고 쓰고는, 천막과 침구, 붓과 벼루, 서적, 약탕관과 다관, 밥술 국술 등의 도구 일체를 구비했다고 하였다. 아울러 화공을 동반해 강가의 경치 좋은 곳을 그

---

15) 『다산시문집』 권22, 「汕行日記」 “嘉慶庚辰春三月廿四日, 先伯氏領兒學淳, 逆女于春州, 治小舟入峽. 余從而往焉, 登昭陽亭, 觀清平山瀑布, 得絕句二十五首 · 和杜詩十二首 · 雜體十首. 越四年癸未夏四月十五日, 學淵領兒大林, 逆女于春州, 治小舟入峽, 余又從焉, 意在漢溪谷雲之間也. 別求漁艇寬者, 裝之如屋, 扁其楣曰‘山水綠齋’, 余所書也. 左右柱曰‘張志和苕霅之趣’ · ‘倪元鎮湖洧之情’, 申綽承旨之隸書也. 淵之船題曰‘游於黃驍綠驍之間’, 其柱曰‘浮家汎宅’ · 水宿風餐. 屏帷氈褥之具 · 筆硯書籍之供, 以至藥爐茶罐飯銚羹鎗之屬, 靡不畢備. 意欲携一畫工, 帶丹鉛澹采, 每到水窮雲起之地 · 柳暗花明之村, 停舟選勝, 票題作畫. 如云‘沙羅潭望水鍾寺’ · ‘臯狼渡望龍門山’, 皆絕景之可寫者也.”



림으로 남기고자 하였는데, 실제로 산수화에 능한 방우도(方禹度)란 선비를 직접 찾아가 데려왔으나, 며칠 만에 병이 나 대동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번 여행에서 강에 노닐며 배에서 생활하는 부가범택의 소망을 실현하고, 그림으로도 남겨 와유(臥遊)의 자료로 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산의 춘천 여행이 오로지 선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바로 이어지는 기록에서 “경진년에는 시(詩)로 행로(行路)를 기록하여 갈 때의 길은 상세히 기록하고 회로(回路)의 기록은 소략히 하였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별히 물길을 기록하고자 하기에, 갈 때의 길은 대략 기록하고 회로의 기록은 상세히 하였다. 이것은 피차를 서로 구비하려는 것이요, 또 수원을 따라 탐구하여 수경가(水經家)의 보주(補註)를 돕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산의 춘천 여행은 평소 염원하였던 부가범택의 소망을 실현하는 선유이자, 『대동수경』에서 못 다른 한강의 물길을 탐구하고자 하는 학술 답사의 성격을 겸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16)</sup> 다산은 실제 답사를 통해 북한강의 수원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그는 여행을 끝낸 직후인 4월 28일에 “산수심원기(山水尋源記)를 수정하여 이틀 만에 마쳤다.”라고 하였다. 『산수심원기』의 첫 대목에서 다산은 중국 사서에서 말한 열수(洌水)는 한강(漢水, 한강), 산수(山水)는 북강(北江, 북한강), 습수(濕水)는 남강(南江, 남한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정하였고, 이는 내가 직접 답사하고 목격한 결과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확신하였다.<sup>17)</sup>

16) 심경호 교수는 「정약용의 해배 이후 춘천 여행」(『다산학』 29호, 2016)에서 춘천 여행의 의미를 자세히 다루면서, 다산이 상고사 문제에서 洌水·山水·濕水를 비정하는 문제와 춘천과 貂國·樂浪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았다.

17) 『다산시문집』 권22, 「山水尋源記」 “『史記·朝鮮傳』注, 張晏云‘朝鮮有濕水·洌水·山水, 三水合爲洌水’, 而班固『地志』, 吞列·列口, 明係今江華·交豐之地, 則洌水者, 今之所謂漢水也. … 北江之水, 皆出衆山之谷, 是山水也. 南江之水, 皆出原隰之地, 是濕水也.”

『산행일기』의 기록을 통해 1823년 11일 간에 걸친 다산의 춘천 여행 일정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sup>18)</sup>

4월 15일 : 마재를 출발하여 호후판(虎吼阪)에서 숙박. 호후판은 청평호 호명산 자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됨.

4월 16일 : 자잠포(紫岑浦)를 출발해 안반촌(安盤村)에서 숙박. 안반촌은 가평강과 북한강의 합류 지점인 지금의 경광교 부근임.

4월 17일 : 삼악산 동쪽 현등협(懸燈峽)과 현재 신연교 아래 신연강(新淵江)을 지나 황혼녘에 소양정(昭陽亭)에 이름.

4월 18일 : 일행과 함께 소양정에 오름. 늙은 풍헌(風憲)으로부터 춘천의 정사가 매우 어지러운 형편임을 들음.

4월 19일 : 손자 대림의 납채를 행함.

4월 20일 : 소양정에 오르고 뱃놀이를 한 뒤 곡운구곡으로 떠나 문암서원(文巖書院)에 숙박. 맥국(狛國)에 대한 변증설을 지음.

4월 21일 : 곡운구곡을 향해 가며 부근의 산수를 유람하고 사내창(史內倉)에서 숙박.

4월 22일 : 곡운서원을 보고 곡운구곡을 두루 탐방함.

4월 23일 : 곡운구곡을 떠나 문암서원을 둘러 소양정에서 숙박.

4월 24일 : 소양정을 떠나 북한강을 내려와 금허(金墟)에서 숙박. 수로 120리를 감.

4월 25일 : 일찍 출발하여 마재 부암(鼻巖)에 정박함. 수로 120리를 감.

마재에서 물길을 거슬러 소양정으로 올라갈 때는 3일, 돌아올 때는 2일이 걸렸다. 소양정과 곡운구곡에서는 각각 이틀 가량을 머물며 승경을 유람하였다. 『산행일기』에서

---

18) 『산행일기』에 등장하는 지명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국립춘천박물관 웹사이트 (<http://chuncheon.museum.go.kr/>)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다산은 이전(1820년)의 춘천 여행 때 지은 시와 함께 이번에 지은 자신의 시 및 여행에 동참한 노론 문사 약암(約菴) 이재의(李載毅)의 시 또한 함께 기록해 놓았다. 아울러 북한강의 물길과 인근 지역 촌락의 실태, 직접 목도한 백성들의 삶의 실상 등 또한 기록해 놓았다. 먼저 북한강 인근 백성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으로 출발 당일의 기록 한 대목을 들어본다.

4월 15일 갑인. 맑음. 일찍 일어나 발선(發船)하여 남자주(藍子洲)에 배를 대놓고 노와 닻줄을 손질한 다음, 공달담(孔達潭)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황공탄(惶恐灘)에 올라 호후판(虎吼阪)에서 잤다. 호후판은 단 세 집이 사는 마을인데, 두 집은 서로 상투를 잡고 치고 받으며 싸워서 그 고향소리가 호랑이 우는 소리와 같았다. 한 집만이 문을 닫고 있어서 그 집을 빌어 유숙하는데, 마침 주인 노파가 산에 올라 화전에 불을 놓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발꿈치를 짚어 밤새도록 그 고통을 부르짖으므로 창문을 사이에 두고 자는 자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세상이 대개 이처럼 고통(苦境)이다.<sup>19)</sup>

청평호 옆에 위치한 호명산 자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후판에 숙박할 때의 정경이다. 단지 3가구가 사는 마을에 두 집이 상투를 잡고 싸우는 소리가 요란하고, 나머지 한 집의 주인 노파는 화전발에 불을 놓다가 발을 다쳐 고통으로 울부짖는다. 그 소리에 잠들지 못하는 다산은 세상살이가 곧 고향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여행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북한강의 수원을 답사하는 데 있었기에 다산은 북한강을 지나면서 사서의 기록을 더듬으며 수로의 지명을 확인하는 데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

19) 동상, 『汕行日記』 “四月十五日甲寅，晴。晨起發船，泊藍子洲，整理橈，到孔達潭餘午，上惶恐灘，宿虎吼阪，三家之村也。兩家相鬪，捽髻踢脅，其吼如虎。唯一家閉門，投之丐宿，乃主媪上山燒菹，根尖貫趾，終夜叫苦，隔窓者不能睡。斯世也，蓋苦境也。”

가평군 남이섬 부근을 지나면서 지은 다음 시는 이를 잘 보여준다.

남이섬 밑 방아올은	南怡苦下方阿兀
한자로 쓰자면 구곡이라 하네.	譯以文之曰谷云
온조왕 회군한 곳 아! 이 땅이로구나	溫祚回軍噫此地
함박눈 날리던 그 정경 머리에 떠오르네.	一天大雪想紛紛

다산은 첫 구에 대해 ‘꿈’ 자에 대해 “방언에 도서(島嶼)를 점(苫)이라 부르니,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보인다.(方言島嶼曰苫, 見『大明一統志』)”라는 주를 달아, ‘남이섬’이라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살려 표현하였다. 그리고 남이섬 밑에 있는 ‘방아골’이란 우리말 지명을 한문으로 표기하면 ‘구곡(臼谷)’이 되니, 이곳이 바로 『삼국사기·백제본기』에 등장하는 그곳임을 확인하고는 감회에 젖는다. 곧 온조(溫祚) 18년(기원전 1) 겨울 11월에 왕이 낙랑의 우두산성(牛頭山城)을 습격하려고 구곡(臼谷)에 이르렀으나 큰 눈을 만나 곧 돌아왔다는 기록을 떠올리며 아득한 고대사의 한 장면을 실감하는 것이다.

다음은 4월 24일 소양정을 출발해 북한강 수로로 내려오면서 곡갈탄(曲葛灘)을 지날 때의 정경을 읊은 시다.

사공이 재촉하여 뱃머리를 돌리니	篙師催轉尾
급한 물살에 돛대가 흔들리네.	湍水戰風檣
돌에 부딪치며 내닫는 물 따르기 어려운데	奔石狂難趁
나는 듯 산봉우리는 아득히 숨는구나.	飛峯杳已藏
익숙한 사공 솜씨에 경탄하고	幹旋驚手熟

안전하게 떠가는 몸 기뻐하네.	平泛喜身康
아득히 뻗은 저 지산의 모습	迤邐芝山色
석양빛 띠어 곱기도 하구나.	娟娟帶夕陽

곡갈탄은 가평 부근에 있다고 하는 여울이다. 다산은 춘천 여행을 마치면서 북한강에 있는 36개의 여울[灘]을 모두 기록하고서, 훗날 북한강의 수로 여행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곡갈탄은 물속에 숨은 바위가 많아 뱃길을 분간하기가 어렵기에 사공이 몹시 두려워하는 곳이라고 하였다.<sup>20)</sup> 곡갈탄의 험한 뱃머리를 이리 저리 둘러가며 익숙한 솜씨로 건너는 사공의 솜씨에 경탄하면서 안도하는 마음이 들자 석양빛을 받은 강가의 산들이 한결 곱게 다가온다.

다산은 『산행일기』의 서문에서 ‘사라담에서 수종사를 바라보는[沙羅潭望水鐘寺]’ 절경 등을 그림으로 그려두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였다. 후대 문인들이 1845년 마재 부근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사라담에 배를 정박한 풍경을 그린 「두강승유도」를 소개하면서 다산의 바람을 헤아려보기로 한다.<sup>21)</sup>

20) 『산행일기』 4월 25일 조. “又轉一曲，下曲葛灘，水中多隱石，船路難辨，船工畏之。… 總計昭陽亭以下，共三十六灘，詳述其名，以備水程之故。”

21) 이 그림은 19세기 문인 洪錫謨, 朴鍾儒, 吳泰雲, 洪宣謨가 1845년에 斗陵을 유람하고 남긴 시첩인 『斗江勝遊帖』(실학박물관 소장)에 수록된 것이다. 이 시첩에는 1845년 이들이 두릉을 유람하고 쓴 유람시 15제 55수와 두릉 유람의 정경을 그린 李建弼의 「두강승유도」 2점이 함께 장첩되어 있다. 『두강승유첩』에 대해서는 김지영, 「19세기 斗陵 유람 시첩, 『斗江勝遊帖』」(『한문고전연구』 63집, 한문고전학회, 2018) 참조.



【李建弼, <斗江勝遊圖>】

5. 맺음말